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6. 20(목)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1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2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3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까.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제23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4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3-24-060)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입니다. 방송인프라 지원,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방송통신서비스 환경조성, 방송소외계층 지원, 방송광고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광고제작 지원, 지역방송사 지원, 공익광고 지원 등 8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8,309억원으로 '13년도 대비 3,73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3억원으로 '13년도 대비 123억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8,116억원으로 '13년도 대비 3,60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감소의 주요내용은 주파수할당 정책변경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감소 및 지상파 방송사의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분담금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년도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1,746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디어센터 건설이 완료되었고, 구체적으로 계속사업에 대해 10% 감액 등으로 지출한도가 감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

프라 지원, 방송통신행정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해 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KBS대외방송 송출지원, KBS출자, EBS방송인프라 개선 등 방송사 인프라 개선에 9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개인정보강화, 불법스팸대응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조성에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방송인프라 지원, 소외계층 지원, 방송광고기반 조성 등 총 26개 사업에 대해 1,2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공익광고활성화 지원, 방송광고모니터링 기반 구축 등 7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KBS와 EBS지원,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 미디어다양성증진 등 방송 인프라 지원에 613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및 시청자지원, 시청자권익보호,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등 방송접근권 보장에 2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광고 기반조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공익광고활성화 지원 등 방송광고 기반구축에 3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고, 9월 까지 3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붙임 2>에 세입 예산안 총괄표와 세출 예산안 총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IPTV나 위성방송이나 SO나 기본적으로 사후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담당하는 것, 아시지요?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후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것, 아시지요?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 방송통신위원회와 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 규제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대상이 빠지거나 더 들어온 사항이 아니라 그대로입니다. PP, SO, 그다음에 SO를 비롯한 유료방송플랫폼, 심지어 홈쇼핑까지도 우리가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의 내용은 작년과 올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대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유료방송의 기본적인 규제는 사전동의를 빼고 다 다른 부처로 넘어간 것처럼 오관할 수 있는데 금지행위 등을 비롯한 사후규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논의에서 봐야 할 점은 인력과 예산인데, 작년 이전에 방송통신위원

회에서도 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었던 것은 사후규제 영역이었지 사전규제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사전규제 영역은 총괄과장들이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의 문제였지만 실제 조사하고 규제하는 부분들에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느냐, 그다음에 여전히 동일한 일들, 그리고 당시 비중과 지금 비중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그리고 정상적인 규제활동을 할 것이냐, 규제기관으로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은 상당 부분 지출한도에 맞춰서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사후규제 관련된 사업이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금년 대비 4억원 정도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 또 방송통신 시장환경 조사분석...

○ 양문석 상임위원

- 전년 대비...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입니다. 또 방송통신 시장환경 조사분석 사업인 경우에도 1억원을 더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방송분야의 평가사업들, 각종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나 또는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마찬가지로,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 문제도 예산 담당부처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대고 보여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기존의 역할과 현재의 역할, 그리고 내년의 역할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반이 줄었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의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유사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의 예산으로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계속해서 기재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각 실·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직제개정안을 안행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기구, 즉 부서를 늘리는 부분과 아울러서 새로운 신 방송과 인력을...

○ 양문석 상임위원

- 부서를 늘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와 인력을 정상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요.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도 증원하려고....

○ 양문석 상임위원

- 증원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적 축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 축소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논의를 기구와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봐야지, 자꾸 증원, 증액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증원 안 된다, 증액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정상화라는 표현도 맞고,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인원을 늘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정상화로 표현해도 문제없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큰 흐름을 보면 이용자보호 쪽으로 굉장히 무게 중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양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용자보호원 설립을 굉장히 큰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아직 법도 통과 안 됐고, 우리가 금년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지요?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아까 4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법이 잘 통과가 되면 우리가 내년쯤 이용자보호원 설립에 관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 4억원 증액한 것으로 쓸 수 있습니까?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예산을 요청할 때는 법이 통과가 되어야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만약 잘 되어서 이용자보호법이 금년에 통과되고 내년에 설립을 준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박노의 기획총괄담당관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박노의 기획총괄담당관

-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기금 변경 계획안을 만들어서 기재부와 협의하면 그 부분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붙임 1> 밑에 재산수입 218억 800만원,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18억 800만원, 병렬로 넣어놓았는데 이것이 다른 항목입니까? 과목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 이 현 재정팀장

- 재산수입 하위 항목이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이고, 그 수입이 다시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과 기타재산수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 뒷장에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423억원이고, 또 정부예금회수가 똑같은 금액입니다.

○ 이 현 재정팀장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항목에 정부예금회수밖에 없었고, 이 정부예금회수 세부 내용은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와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이 2가지가 있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항목이 다른데 왜 액수가 똑같은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끔 나열했습니다. 잘 쓴 것입니까?

○ 이 현 재정팀장

- 0인 항목을 빼고 쓰다 보니까….

○ 이경재 위원장

- 보다 보니까 항목이 약간 다른데 액수는 똑같아서 왜 이렇게 되나 설명을 요구하다 보니까 과목 나열할 때….

○ 김충식 부위원장

- 활자 크기만 바꾸면 되겠네요.

○ 이경재 위원장

- 활자 크기를 바꾸든가 표시를 분명히 해 주어야지요. 지출에서는 그런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 잘못 기재했지요?

○ 이 헌 재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새삼스럽게 보다 보니까 왜 다른 항목인데 액수가 똑같은가..., 그런 것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 헌 재정팀장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출 부문에 방송인프라 개선에서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방송인프라 개선, 디지털 전환 후속 인프라 보강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보다 줄어들었는데 줄어 들고 늘고를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KBS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이 헌 재정팀장

-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래서 KBS가 대외방송을 하고 교육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명목은 되는데 KBS 자체가 바로 이런 국가적 사업, 국가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사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신료로 대체하면 되는데 이렇게 국고로 자꾸 줍니다. 예산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8년 전에 국회에서 그때 정연주 KBS 사장이 있을 때 느닷없이 150억원을 지원하는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자체 경영부실이 엄청나게 나니까 그것을 정부 국고로 지원해서 손실이 적은 것처럼 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원했고 특히 수신료가 32년 동안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KBS의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신료를 올려서 자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고로 자꾸 메워주면 방만하게 운영해도 국고로 메워주는 이런 버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30%~40% 삭감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법정단체에 대한 지원까지도 20%씩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예산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냥 깎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국악방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도 가만히 앉아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예산 교섭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 박노의 기획총괄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예산 결정하는 절차를 보고 며칠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서 10분 동안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 또는 국별로 협의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전체 과장 또는 국장들, 나중에는 위원까지도 참여한 곳에서 공개 토론을 해서 남의 부서 것도 비교하고 균형적인 예산인지를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한 번씩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여기에서 또 고치려면 순서가 이상해지고, 그래야 충분히 위원회에서 전 부처에서 우리 과, 우리 국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남의 국, 남의 과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잘 됐는지 서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인사이동이 됐을 때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올라와서 딱 들이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5분 폐회 】